

#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에 관한 연구(2) : 식중독을 중심으로\*

##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Towards Food Hygiene(2): Focused on Foodborne Illness\*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부교수 김 효 정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김 미 라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ochung Kim*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eera Kim*

### ◀ 목 차 ▶

I. 서 론

II.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 needs towards foodborne ill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504 adults in Seoul, Daegu and Busan b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equencies,  $\chi^2$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SPSS Wind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consumers' concerns and information needs about foodborne illness were generally high, (2) about four-fifths of the subjects were extremely worried about foodborne illness caused by fish, (3) about two-thirds answered that the major factor of foodborne illness in cooking was unfreshed or contaminated food stuffs, (4) the respondents primarily wanted to get the

Corresponding Author: Meera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kyuk-dong, Buk-k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33 Fax: 82-53-950-6229 E-mail: meerak@knu.ac.kr

\*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증진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information about the method to choose fresh food, and (5)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educational attainment and concerns about foodborne illness were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sumers' information needs.

**주제어(Key Words):** 식품위생(food hygiene), 식중독(foodborne illness), 소비자 인식도(consumers' awareness), 소비자 정보요구도(consumers' information needs)

## I. 서론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제조·가공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는 국민 식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식품재료의 재배, 사육에서부터 조리 혹은 섭취까지의 과정이 단순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 세균오염을 방지하거나 독성이 있는 식품재료를 피하면 식품위생관리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안장수, 1991).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식품의 원료공급 방법이 도입되고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식품의 생산, 운반, 가공 및 제조, 저장과 유통, 조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복잡해지고 각 단계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염된 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의 고급화,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식생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의 경우 최근 그 발생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중독과 관련하여 발생원인균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실제로 식품 위해에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나 인식정도에 관해 수행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또한 식품의 최종선택자인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식중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식중독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도와 정보요구도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정보요구도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식중독에 의한 위해

식중독은 식생활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전체적인 위생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환자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 및 직장에서 집단급식이 확대되고 가정에서 외식 기회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우리나라 식중독 환자의 발생현황을 발생건수당 환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는 288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68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http://www.kfda.go.kr/korea/food/foodpoison.html>).

한편, 국내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식중독균으로는 *Salmonella enteritidis*, *Campylobacter jejuni*, *Escherichia coli* O157:H7, *Vibrio vulnificus*, *Listeria monocytogenes*, *Yersinia enterocolitica*, 그리고 Hepatitis A virus, Hepatitis E virus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매년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전체 78건 중 25건(32.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http://www.kfda.go.kr/korea/food/foodpoison.html>).

한편 *Escherichia coli* O157:H7은 식중독 발생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검역에서 자주 발견되어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Hui,

Gorham, Murrell & Cliver, 1994; Morris & Potter, 1997). 따라서 식중독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및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2. 소비자의 정보요구도

과거 상품이나 서비스가 단순하고 종류도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현대는 소비자들이 그 수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 사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사용에 따른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정보란 “소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장 상황의 인지내용으로서 현재 및 미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한 정도를 감소시켜 주며 소비자 자신의 욕망충족 및 기타 목표설정에 유용하고 유의성 있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이은희, 1993). 한편 김용자(1996)는 소비자정보를 최종 소비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매, 사용 그리고 폐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며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자료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득연·최선경(1994)은 소비자정보가 갖는 의의로 첫째,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비자 불만족을 줄이고 소비자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둘째, 소비자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소비자가 자신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힘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tkin(1973)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지식 수준과 희망하는 지식 수준 사이의 불일치를 느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보요구라고 하였다.

또한 불확실성은 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데 외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은희(1993)는 소비자들이 구매선택과정에서 상품들의 품질과 성능을 비교, 판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현재 알고 있는 지식 수준과 그가 희망하는 지식 수준 사이에 느껴지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욕구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소비자 정보요구라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정보요구에 대하여 식품과 관련되어 행해진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식품과 관련된 정보내용을 다룬 몇몇 연구만 있을 뿐인데, Chambolle(1988)은 소비자들이 식품에 기대하는 바를 적절한 공급, 고정되고 안정된 구매가격, 음식물의 안전성, 영양학적 균형,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정책 결정에서의 소비자의 참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상품별 정보의 필요성을 살펴본 정영금(1998)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요구도는 매우 높았고, 특히 곡류/육류/채소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들 상품들이 가정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고 있어 주부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품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 및 수입식품의 도입 등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 제품관여도 등이 있다. 김성숙·이승신(2000), Phillips와 Sternthal(1977), Westbrook과 Fornell(1979)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보요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제품 및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증가로 추가적인 정보탐색의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은희·이기춘(1991)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은 보다 많은 정보의 요구도, 보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도, 가격과 판매점에 관한 정보요구도, 상품선택 요령에 관한 정보요구도 및 각 상표가 바람직한 점을 가진 정도에 관

한 정보요구도와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용 및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요구도나 생활설계에 관한 정보요구도와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은 정보요구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권자숙, 1995;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Newman & Staelin, 197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희·이기춘(1991)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보다 많은 정보에 대한 요구도, 가격과 판매점에 관한 정보요구도, 상품선택 요령에 관한 정보요구도와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보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도, 시장에 존재하는 상표에 관한 정보요구도 및 상표가 바람직한 점을 가진 정도에 관한 정보요구도와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정보요구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Schaninger와 Sciglimpaglia(1981), Biehal(1983)은 소득수준과 정보요구도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권자숙(1995)의 연구에서는 중간소득계층의 정보요구도가 높았고 김성숙·이승신(2000), 이은희(1991), Claxton 등(1974)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요구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관여도는 소비자의 정보요구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이은희, 1993; 이은희, 1997; 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제품에 대한 관여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잔류농약에 관한 정보요구도를 분석한 김효정·김미라(2003)의 연구에서 잔류농약의 관심도가 잔류농약의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식중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식중독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식중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이들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의 항목 및 정보요구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은 본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가계소득, 소비자교육 경험 및 관심도에 관한 문항 등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문항들도 포함되었다. 소비자교육 경험 및 관심도는 '소비자단체나 문화센터 등에서 소비자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신문에서 소비자문제나 소비자교육에 관한 기사를 관심을 두고 읽은 적이 있다' 등 모두 6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예'에 1점, '아니오'에 0점을 부여하여 이들의 총계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는데, 점수가 많을수록 소비자교육 경험 및 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대구 및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로부터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2000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되었는데, 각 지역에 있어서 구(區)마다 고르게 표집되도록 각각 200부씩을 배부하여 서울 192부, 대구 185부, 부산 182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5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식중독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식중독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6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회귀분석에서 성별(0=남성, 1=여성), 교육수준(0=고졸 이하, 1=전문대졸 이상), 식중독 경험 여부(0=있음, 1=없음)는 가변수로 처리하였고, 다른 변수들은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34.5%, 여성이 65.5%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평균이 35.10세로 20대, 30대가 40대와 50세 이상보다 많이 표집되어 전체 응답자의 68.3%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5.0%, 전문대졸 이상이 55.0%이었다. 직업은 주부가 2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21.4%), 학생(17.3%), 전문직(16.8%) 순이었다. 월가계소득은 평균이 2,346,726.21원으로 151만~200만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3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1만~150만원 이하(17.3%), 301만원 이상(16.5%) 순이었다. 또한 소비자교육 및 관심도를 보면 평균이 2.51로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고 소비자교육에 관한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0.5%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4)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74(34.5)
	여성	330(65.5)
연령	20~29세	192(38.1)
	30~39세	152(30.2)
	40~49세	89(17.6)
	50세 이상	71(14.1)
	평균 표준편차	35.10 10.94
교육수준	고졸 이하	227(45.0)
	전문대졸 이상	277(55.0)
직업	전문직	85(16.8)
	사무직	108(21.4)
	판매, 생산, 노무직	72(14.3)
	학생	87(17.3)
	주부(여성)/무직(남성)	142(28.2)/10( 2.0)
월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38( 7.5)
	101만~150만원 이하	87(17.3)
	151만~200만원 이하	201(39.9)
	201만~250만원 이하	37( 7.3)
	251만~300만원 이하	58(11.5)
	301만원 이상	83(16.5)
	평균 표준편차	2,346,726.21원 1,094,816.25원
소비자교육 경험 및 관심도	0	53(10.5)
	1	79(15.7)
	2	130(25.8)
	3	120(23.8)
	4	63(12.5)
	5	38( 7.5)
	6	21( 4.2)
평균 표준편차	2.51 1.55	

2. 식중독에 대한 인식도

식중독에 대한 인식도를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 식중독 발생요인에 대한 견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견해, 조리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에 대한 견해, 식중독 경험여부 및 발생 장소, 식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그리고 식중독 정보제공 매체의 선호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40.9%가 '대체로 관심있음', 그리고 31.9%가 '매우 관심있음'에 응답하여 식중독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들이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중 잔류농약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2003)와 비교해보았을 때, 잔류농약의 경우 '대체로 관심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40.7%로 식중독에 대한 응답비율과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매우 관심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잔류농약이 36.8%로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잔류농약과 식중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정도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chi^2=45.20$ ,  $p<.01$ ),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식중독에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 2) 식중독 발생요인에 대한 견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세균이 73.6%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학물질(19.3%), 자연독소(7.1%) 순이었다(<표 3>참조).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식중독 발생요인으로는 실제로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견해는 대체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검증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chi^2=15.50$ ,  $p<.05$ ), 40세 이상의 응답자는 20, 30대의 응답자에 비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자연독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 3)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견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많은 응답자들이 어패류(82.7%)를 들었으며, 그 외의 다른 식품에 대한 식중독 우려 정도는 낮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고에 의하면(2001), 1999년에는 '어패류 및 가공품' 섭취

&lt;표 2&gt;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

변수	구 분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보통	대체로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계	$\chi^2$ Value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2(1.2)	11(6.3)	31(17.8)	84(48.3)	46(26.4)	174(100.0)	6.81
	여성	4(1.2)	19(5.8)	70(21.2)	122(37.0)	115(34.8)		
연령	20~29세	3(1.5)	18(9.4)	56(29.2)	78(40.6)	37(19.3)	192(100.0)	45.20**
	30~39세	3(2.0)	7(4.6)	21(13.8)	68(44.7)	53(34.9)	152(100.0)	
	40~49세	0(.0)	2(2.3)	18(20.2)	29(32.6)	40(44.9)	89(100.0)	
	50세 이상	0(.0)	3(4.2)	6(8.5)	31(43.6)	31(43.7)	71(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4)	13(5.7)	44(19.4)	88(38.8)	81(35.7)	227(100.0)	4.33
	전문대졸 이상	5(1.8)	17(6.1)	57(20.6)	118(42.6)	80(28.9)	277(100.0)	
월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2(5.2)	3(7.9)	9(23.7)	12(31.6)	12(31.6)	38(100.0)	20.74
	101만~150만원	1(1.1)	3(3.4)	18(20.7)	38(43.7)	27(31.1)	87(100.0)	
	151만~200만원	2(1.0)	14(7.0)	39(19.4)	73(36.3)	73(36.3)	201(100.0)	
	201만~250만원	0(.0)	2(5.4)	6(16.2)	15(40.6)	14(37.8)	37(100.0)	
	251만~300만원	0(.0)	2(3.4)	16(27.6)	29(50.0)	11(19.0)	58(100.0)	
	301만원 이상	1(1.2)	6(7.2)	13(15.7)	39(47.0)	24(28.9)	83(100.0)	
계		6(1.2)	30(6.0)	101(20.0)	206(40.9)	161(31.9)	504(100.0)	

\*\*  $p<.01$

<표 3> 식중독 발생요인에 대한 견해

변수	구 분	세균	화학물질	자연독소	계	$\chi^2$ Value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131(75.3)	35(20.1)	8( 4.6)	174(100.0)	2.62
	여성	240(72.7)	62(18.8)	28( 8.5)	330(100.0)	
연령	20~29세	150(78.1)	33(17.2)	9( 4.7)	192(100.0)	15.50*
	30~39세	115(75.7)	31(20.4)	6( 3.9)	152(100.0)	
	40~49세	62(69.7)	16(18.0)	11(12.3)	89(100.0)	
	50세 이상	44(62.0)	17(23.9)	10(14.1)	71(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69(74.5)	42(18.5)	16( 7.0)	227(100.0)	.16
	전문대졸 이상	202(72.9)	55(19.9)	20( 7.2)	277(100.0)	
월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27(71.1)	7(18.4)	4(10.5)	38(100.0)	7.56
	101만~150만원	66(75.9)	12(13.8)	9(10.3)	87(100.0)	
	151만~200만원	147(73.1)	42(20.9)	12( 6.0)	201(100.0)	
	201만~250만원	30(81.1)	7(18.9)	0( 0)	37(100.0)	
	251만~300만원	40(69.0)	13(22.4)	5( 8.6)	58(100.0)	
	301만원 이상	61(73.5)	16(19.3)	6( 7.2)	83(100.0)	
계		371(73.6)	97(19.3)	36( 7.1)	504(100.0)	

\* p<.05

<표 4>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견해

변수	구 분	어패류	육류	곡류	버섯류	야채류	통조림류	과자, 스낵류	견과류	계	$\chi^2$ Value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140(80.5)	13( 7.5)	3(1.7)	0( 0)	5(2.9)	11( 6.3)	0( 0)	2(1.1)	174(100.0)	9.60
	여성	277(83.9)	23( 7.0)	4(1.2)	5(1.5)	4(1.2)	16( 4.9)	1( 0.3)	0( 0)	330(100.0)	
연령	20~29세	150(78.1)	17( 8.9)	1( 0.5)	1( 0.5)	6(3.1)	17( 8.9)	0( 0)	0( 0)	192(100.0)	36.08*
	30~39세	130(85.6)	13( 8.6)	4(2.7)	2(1.3)	0( 0)	1( 0.6)	1( 0.6)	1( 0.6)	152(100.0)	
	40~49세	76(85.4)	3( 3.4)	0( 0)	1(1.1)	1(1.1)	8( 9.0)	0( 0)	0( 0)	89(100.0)	
	50세 이상	61(85.9)	3( 4.3)	2(2.8)	1(1.4)	2(2.8)	1( 1.4)	0( 0)	1(1.4)	71(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87(82.4)	12( 5.3)	3(1.3)	3(1.3)	5(2.2)	16( 7.1)	0( 0)	1( 0.4)	227(100.0)	5.91
	전문대졸 이상	230(83.0)	24( 8.7)	4(1.4)	2( 0.7)	4(1.4)	11( 4.0)	1( 0.4)	1( 0.4)	277(100.0)	
월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30(78.9)	2( 5.3)	0( 0)	0( 0)	2(5.3)	4(10.5)	0( 0)	0( 0)	38(100.0)	38.61
	101만~150만원	69(79.3)	9(10.4)	2(2.3)	1(1.1)	0( 0)	3( 3.5)	1(1.1)	2(2.3)	87(100.0)	
	151만~200만원	172(85.5)	14( 7.0)	3(1.5)	1( 0.5)	3(1.5)	8( 4.0)	0( 0)	0( 0)	201(100.0)	
	201만~250만원	34(91.9)	1( 2.7)	1(2.7)	0( 0)	0( 0)	1( 2.7)	0( 0)	0( 0)	37(100.0)	
	251만~300만원	48(82.7)	4( 6.9)	1(1.7)	1(1.7)	2(3.4)	2( 3.4)	0( 0)	0( 0)	58(100.0)	
	301만원 이상	64(77.1)	6( 7.2)	0( 0)	2(2.4)	2(2.4)	9(10.9)	0( 0)	0( 0)	83(100.0)	
계		417(82.7)	36( 7.1)	7(1.4)	5(1.0)	9(1.8)	27( 5.4)	1( 0.2)	2( 0.4)	504(100.0)	

\* p<.05

취로 인한 식중독이 69건(2,27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에는 '육류 및 가공품'에 의한 식

중독이 29건(3,57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김밥·도시락 등 복합 조리식품에 의하여도 식중독

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식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chi^2=36.08, p<.05$ ). 20대와 40대는 30대와 50세 이상에 비해 통조림류에 응답한 비율이 많았고, 40대와 50세 이상은 20대와 30대에 비해 육류에 응답한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조리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에 대한 견해

'조리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5%가 '식품재료의 신선도 저하 및 오염'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리 후 부적절한 식품의 보관상태(18.7%)', '불량한 조리상태(8.1%)'를 들었다(<표 5> 참조). 즉 많은 소비자들은 신선한 식품을 이용할수록 식중독을 덜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chi^2$  검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식중독 경험여부 및 발생 장소

'최근 1년간 식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6.3%가 식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어느 곳에서 섭취한 음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질의한 결과, '일반 식당'이 56.1%로 가장 많았고, '집(18.3%)', '근무처의 단체급식(13.4%)', '기타(12.2%)'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http://www.kfda.go.kr/korea/food/foodpoison.html>)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4월말까지의 식중독 환자수 2,825명 중 67.0%가 학교, 28.7%가 회사 또는 공장에서 섭취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로, 전체 환자수의 95.7%가 집단 급식소에 의한 식중독 환자이었고, 3.8%가 음식점에 의한 식중독 환자인 것으로 밝혀져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가 20대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5> 조리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에 대한 견해

변수	구분	식품재료의 신선도 저하 및 오염	불량한 조리상태	조리사의 부적절한 청결상태	조리 후 부적절한 식품의 보관상태	계	$\chi^2$ Value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116(66.7)	12( 6.9)	6( 3.4)	40( 23.0)	174(100.0)	4.27
	여성	229(69.4)	29( 8.8)	18( 5.4)	54( 16.4)	330(100.0)	
연령	20~29세	136(70.8)	14( 7.3)	8( 4.2)	34( 17.7)	192(100.0)	7.22
	30~39세	102(67.1)	17(11.2)	9( 5.9)	24( 15.8)	152(100.0)	
	40~49세	61(68.5)	7( 7.9)	3( 3.4)	18( 20.2)	89(100.0)	
	50세 이상	46(64.8)	3( 4.2)	4( 5.6)	18( 25.4)	71(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50(66.1)	15( 6.6)	9( 4.0)	53( 23.3)	227(100.0)	6.96
	전문대졸 이상	195(70.4)	26( 9.4)	15( 5.4)	41( 14.8)	277(100.0)	
월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22(57.9)	1( 2.6)	3( 7.9)	12( 31.6)	38(100.0)	17.83
	101만~150만원	55(63.2)	7( 8.1)	4( 4.6)	21( 24.1)	87(100.0)	
	151만~200만원	152(75.6)	17( 8.5)	6( 3.0)	26( 12.9)	201(100.0)	
	201만~250만원	23(62.2)	2( 5.4)	3( 8.1)	9( 24.3)	37(100.0)	
	251만~300만원	40(69.0)	5( 8.6)	3( 5.2)	10( 17.2)	58(100.0)	
	301만원 이상	53(63.9)	9(10.8)	5( 6.0)	16( 19.3)	83(100.0)	
계		345(68.4)	41( 8.1)	24( 4.8)	94( 18.7)	504(100.0)	

6) 식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에 대한 정보(23.6%)', '재료보관 방법에 대한 정보(12.5%)', '조리 후 식품보관 방법에 대한 정보(6.1%)', '위생적인 조리방법에 대한 정보(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문항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응답들이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신선하지 못한 재료라고 응답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chi^2$  검증 결과, 월가계소득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 $\chi^2=39.42, p<.01$ ), 월가계소득이 201만~250만원인 경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정보에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에 대한 정보 및 재료 보관방법에 대한 정보에 응답한 비율은 적었다.

7) 식중독 정보제공 매체의 선호도

식중독과 관련된 정보나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9%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문이나 잡지(14.1%)', '소비자단체(5.3%)'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정보제공의 매체로 대중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정영금(1998)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여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 제공

<표 6> 식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변수	구분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에 대한 정보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정보	재료 보관방법에 대한 정보	위생적인 조리방법에 대한 정보	조리 후 식품 보관방법에 대한 정보	계	$\chi^2$ Value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35(20.1)	88(50.6)	24(13.8)	9( 5.2)	18(10.3)	174(100.0)	9.60
	여성	84(25.5)	178(53.9)	39(11.8)	16( 4.8)	13( 3.9)	330(100.0)	
연령	20~29세	35(18.2)	110(57.3)	22(11.5)	9( 4.7)	16( 8.3)	192(100.0)	17.67
	30~39세	36(23.7)	77(50.7)	22(14.5)	11( 7.2)	6( 3.9)	152(100.0)	
	40~49세	23(25.8)	49(55.1)	10(11.2)	4( 4.5)	3(5.3)	89(100.0)	
	50세 이상	25(35.2)	30(42.3)	9(12.7)	1( 1.4)	6( 3.7)	71(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60(26.4)	116(51.1)	21( 9.3)	11( 4.8)	19( 8.4)	227(100.0)	8.42
	전문대졸 이상	59(21.3)	150(54.1)	42(15.2)	14( 5.1)	12( 4.3)	277(100.0)	
월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8(21.0)	22(57.9)	6(15.8)	0( 0)	2( 5.3)	38(100.0)	39.42**
	101만~150만원	23(26.4)	44(50.6)	9(10.4)	1( 1.1)	10(11.5)	87(100.0)	
	151만~200만원	56(27.9)	111(55.2)	15( 7.5)	10( 5.0)	9( 4.5)	201(100.0)	
	201만~250만원	5(13.5)	26(70.3)	2( 5.4)	2( 5.4)	2( 5.4)	37(100.0)	
	251만~300만원	11(19.0)	24(41.4)	14(24.1)	5( 8.6)	4( 6.9)	58(100.0)	
	301만원 이상	16(19.3)	39(47.0)	17(20.5)	7( 8.4)	4( 4.8)	83(100.0)	
계		119(23.6)	266(52.8)	63(12.5)	25( 5.0)	31( 6.1)	504(100.0)	

\*\* p<.01

〈표 7〉 식중독 정보제공 매체의 선호도

변수	구 분	텔레비전	신문	소비자	학교	행정	벽보	반사회	인터넷	기타	계	χ <sup>2</sup> Value
		/라디오	/잡지	단체		기관	유인물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99(56.9)	26(15.0)	9( 5.2)	8(4.6)	8(4.6)	1( .6)	6(3.4)	15( 8.6)	2(1.1)	174(100.0)	3.31
	여성	218(66.1)	45(13.6)	18( 5.5)	14(4.2)	12(3.6)	2( .7)	9(2.7)	7( 2.1)	5(1.5)	330(100.0)	
연령	20~29세	119(62.0)	25(13.0)	14( 7.3)	10(5.2)	10(5.2)	2(1.0)	0( .0)	9( 4.7)	3(1.6)	192(100.0)	25.86
	30~39세	91(59.9)	24(15.8)	7( 4.6)	8(5.2)	3(2.0)	1( .7)	7(4.6)	10( 6.5)	1( .7)	152(100.0)	
	40~49세	60(67.4)	12(13.5)	3( 3.4)	3(3.4)	5(5.6)	0( 0)	4(4.5)	1( 1.1)	1(1.1)	89(100.0)	
	50세 이상	47(66.2)	10(14.1)	3( 4.3)	1(1.4)	2(2.8)	0( 0)	4(5.6)	2( 2.8)	2(2.8)	71(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57(69.2)	30(13.2)	11( 4.9)	6(2.6)	10(4.4)	0( 0)	8(3.5)	3( 1.3)	2( .9)	227(100.0)	18.41*
	전문대졸 이상	160(57.8)	41(14.8)	16( 5.8)	16(5.8)	10(3.6)	3(1.1)	7(2.5)	19( 6.8)	5(1.8)	277(100.0)	
월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24(63.2)	4(10.5)	4(10.5)	2(5.3)	3(7.9)	0( 0)	0( .0)	1( 2.6)	0( 0)	38(100.0)	54.38
	101만~150만원	59(67.8)	12(13.8)	3( 3.5)	1(1.1)	3(3.5)	2(2.3)	5(5.7)	2( 2.3)	0( 0)	87(100.0)	
	151만~200만원	126(62.7)	33(16.4)	14( 7.0)	7(3.5)	6(3.0)	1( .5)	2( .9)	8( 4.0)	4(2.0)	201(100.0)	
	201만~250만원	29(78.4)	0( .0)	2( 5.4)	1(2.7)	0( 0)	0( 0)	1(2.7)	4(10.8)	0( 0)	37(100.0)	
	251만~300만원	34(58.6)	9(15.5)	2( 3.5)	5(8.6)	3(5.2)	0( 0)	4(6.9)	1( 1.7)	0( 0)	58(100.0)	
	301만원 이상	45(54.3)	13(15.7)	2( 2.4)	6(7.2)	5(6.0)	0( 0)	3(3.6)	6( 7.2)	3(3.6)	83(100.0)	
계		317(62.9)	71(14.1)	27( 5.3)	22(4.4)	20(4.0)	3( .6)	15(3.0)	22( 4.3)	7(1.4)	504(100.0)	

\* p<.01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라 식중독 정보제공 매체의 선호도에 차이를 보여 ( $\chi^2=18.41, p<.05$ ),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식중독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요구도 및 관련 변인

#### 1) 식중독에 관한 정보요구도

식중독에 관한 정보요구도는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되었는데, 분석 결과 '매우 필요함'이 39.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금 필요함'이 32.5%, '보통'이 20.2% 순으로 나타나서 많은 응답자들이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참조).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요구도를 연구한 김효정·김미라(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매

〈표 8〉 식중독에 관한 정보요구도

항 목	빈 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3( 0.7)
별로 필요하지 않음	36( 7.1)
보통	102( 20.2)
조금 필요함	164( 32.5)
매우 필요함	199( 39.5)
계	504(100.0)

우 필요함'이 50.4%, '조금 필요함'이 33.4%로, 식중독에 관한 정보요구도는 잔류농약에 관한 정보요구도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식중독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표 9〉는 식중독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소비자교육 경험 및 관심도,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 식중독 경험 여부가 포함되었다. 중회귀분

<표 9> 식중독에 대한 정보요구도의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b	$\beta$
성별 <sup>a)</sup>	4.22E-02	.02
연령	-9.11E-05	-.01
교육수준 <sup>a)</sup>	-.21	-.10**
월가계소득	-2.40E-08	-.03
소비자교육 경험 및 관심도	2.23E-02	.04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	.60	.57***
식중독 경험 여부	6.06E-03	.01
상수	1.96	
표준화된 R <sup>2</sup>	.35	
F값	39.73***	

\*\* p<.01 \*\*\*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석 결과, 교육수준 및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가 식중독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의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낮고 식중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제품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보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김효정·김미라, 2003; 이은희, 1993; 이은희, 1997; Engel et al., 1995)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식중독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정보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식중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를 살펴보고,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대구 및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중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요구도는 대체로 높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식중독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세균을 지적하였고, 다른 식품에 비해 어패류가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된 식품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식품 재료의 신선도 저하 및 오염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응답자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식중독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중독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교육수준 및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가 식중독에 대한 정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낮고 식중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제조 및 가공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소비자들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나 관련단체들은 이들 매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TV 프로그램,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각종 소비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용자, 1996). 따라서 우리의 정부 및 관련단체들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식중독의 경우 피해 예방 차원의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와 이와 관련된 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보탐색 행동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정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보고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리사, 영양사 등 전문가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가정에서 식중독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탐색 행동 및 소비자 위생교육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권자숙(1995).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이승신(2000). 상품 안전정보에 관한 소비자 행동 연구. 소비자학연구, 11(3), 59-85.
- 김용자(1996).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에 관한 연구. 소비문제연구, 18, 1-39.
- 김효정, 김미라(2003).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요구도에 관한 연구(1): 잔류농약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15-26.
- 송형익, 김영만, 이응수, 이치영, 진효상(2000). 현대 식품위생학. 지구문화사.
- 식품의약품안전청(2001). 식중독발생 현황 및 예방 대책.
- 안장수(1991). 식품위생: 식중독. 한국식품연구문헌총람, 5, 294-316.
- 이득연, 최선경(1994). 소비자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비자정보 활용도 평가. 한국소비자보호원.
- 이은희(1993). 소비자정보의 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1997). 소비자 정보의 내용별 요구도와 관련 변수들간의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77-194.
- 이은희, 이기춘(1991). 소비자정보요구와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59-176.
-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소비자의사결정과정에서의 소비자정보 활용도 평가. 정책연구보고서.
- Atkin, C. (1973). *Instrumental utilities and information seeking: New models for communication research*. Clarkes: Hills and Sage.
- Biehal, G. J. (1983). Consumer's prior experiences and perceptions in auto repair choice. *Journal of Marketing*, 47, 82-91.
- Chambolle, M. (1988). Food policy and the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Policy*, 11, 435-448.
- Claxton, J. D., Fry, J. H., & Portis, B. (1974). A taxonomy of prepurchase information gathering patter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35-42.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5). *Consumer Behavior*, 8th ed., Fort Worth: Dryden Press.
- Hui, Y. H., Gorham, J. R., Murrell, K. D., & Cliver, D. O. (1994). *Foodborne disease handbook*. New York: Marcel Dekker, Inc.
- Morris, J. G. Jr. & Potter, M. (1997). Emergence of new pathogens as a function of changes in host susceptibility. *EID*, 3, 435-441.
- Newman, J. W. & Staelin, R. (1972). Prepurchase information seeking for new cars and major household applianc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9, 249-257.
- Phillips, L. & Sternthal, B. (1977). Age differences in information processing: A perspective on the aged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 444-457.
- Schaninger, C. M. & Sciglimpaglia, D. (1981). The influence of cognitive personality traits and demographics of consumer information acquisi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208-216.
- Westbook, R. A. & Fornell, C. (1979). Patterns of information source usage among durable goods buye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 303-312. <http://www.kfda.go.kr/korea/food/foodpoison.html>

(2003년 4월 28일 접수, 2003년 9월 23일 채택)